

# 섹슈얼리티 쟁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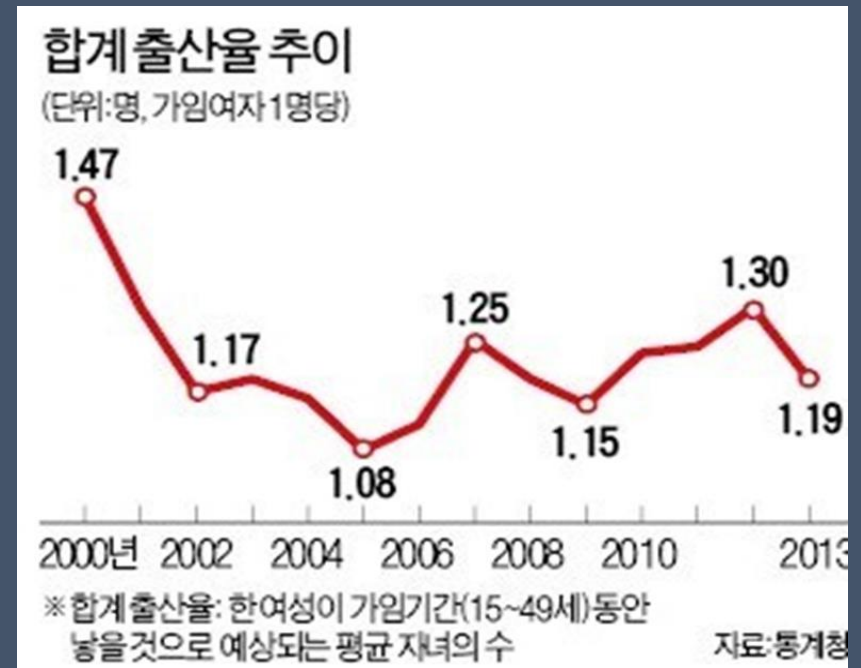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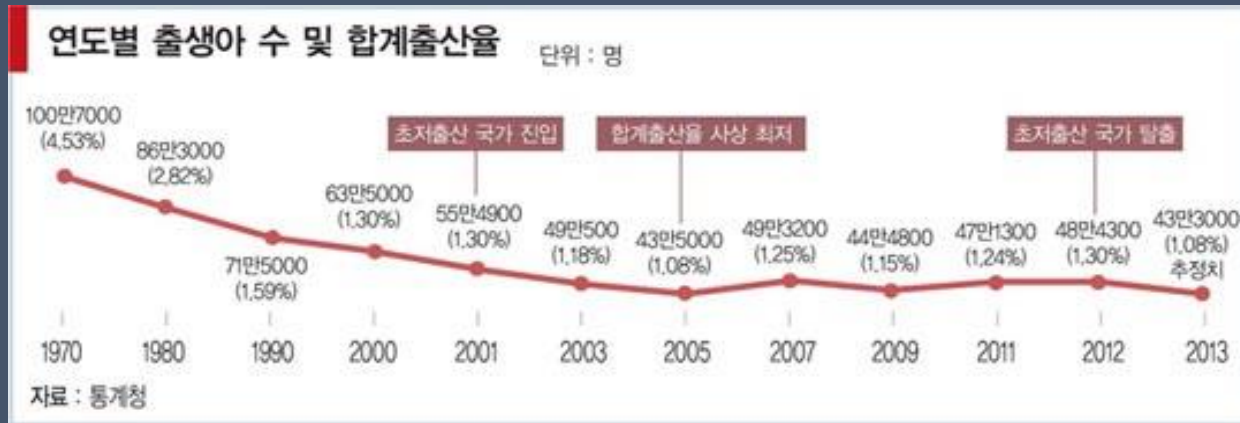
당대 여성운동은 어디에 서 있는가

권김현영

# 해방 이후 국가의 섹슈얼리티 담론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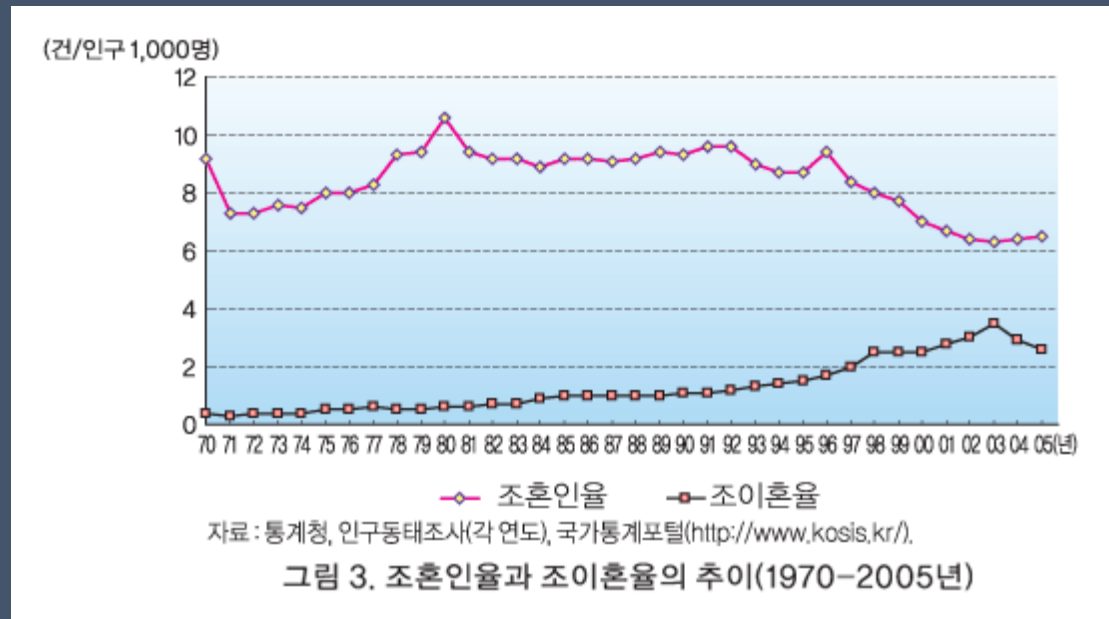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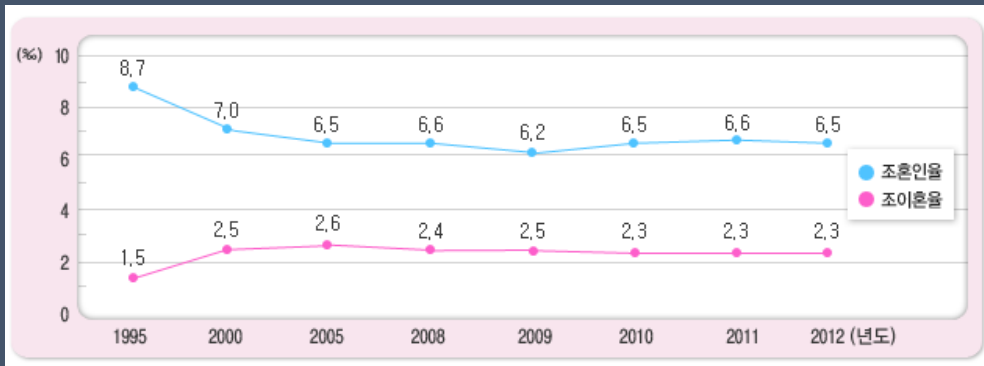
# 한국 가족 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지표들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통계청,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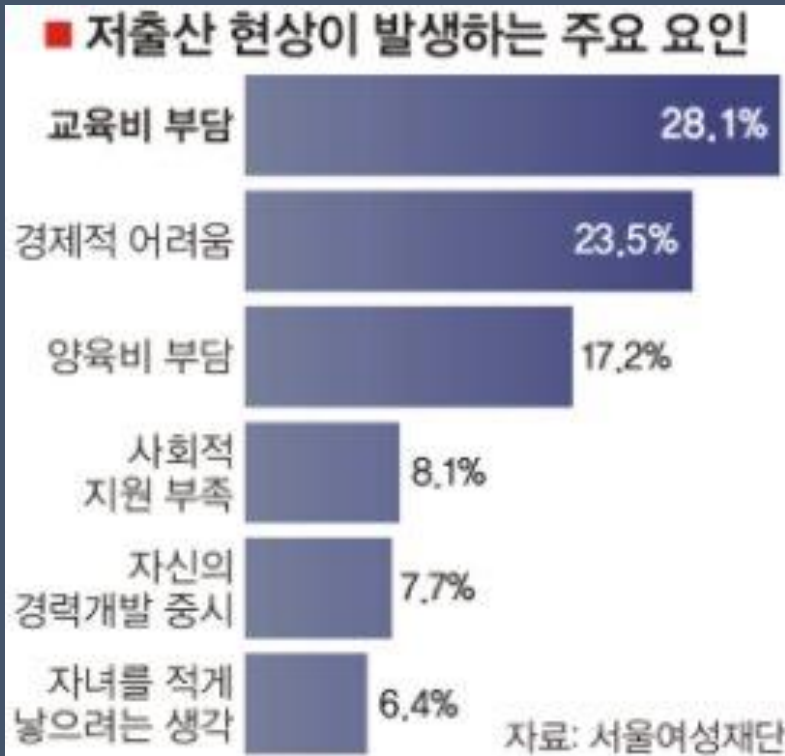


# 한국 가족 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지표들

- 한국의 이혼율/조이혼율 변화 추이



# 한국 가족 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지표들



- 2008년, 24-44세 사이 기혼 1490명/미혼 1010명
- 희망자녀 수는 '2명'(65.7%)
- 200만원 이후보다 300-400만원 대 소득자가 더 희망 자녀 수가 많아

# 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변화

- <Standard North America Family> 모델은 전반적 변화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음
- 유럽 연합 전반의 변화 이혼 과 별거율의 증가, 성역할 변화, 동거 커플 및 혼외 출생, 비관례적/빈전통적 형태, 동성애 가족과 비동거 커플의 비율 증가 ->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 가족이란 비물질적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로의 가치이자 인간 행복의 원천으로 이해
- 북유럽 가족 제도의 특징 : 성, 사랑, 가족, 결혼 등의 유연한 선택과 분리 (핀란드의 경우 결혼한 커플의 절반이 혼전 동거, 아이 출산 후 혼인, 1/5 가정이 무결혼)
- 북미와 유럽 전반적으로 결혼은 늦게, 원가족 포함 기간 연장

#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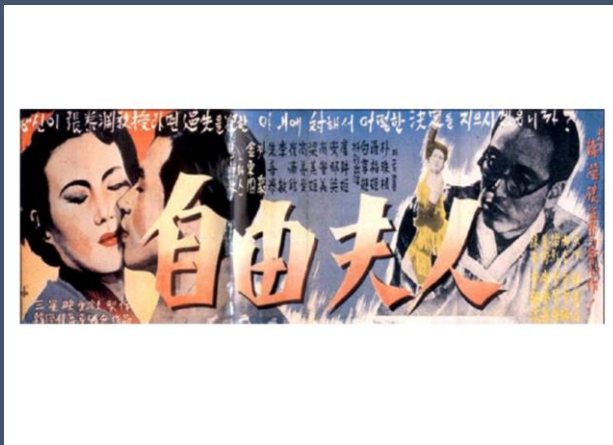
- 2003년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출범
-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 2005년 저출산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6년 정부 [다문화 다인종 사회 선언]  
14개 정부부처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 실시
- 2007년 60개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결혼격려금 지급
- 2007년 미혼 공무원 짝짓기 미팅 지원 (2015년 현재까지)
- 2008년 이혼숙려제 도입
-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계획] 발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신혼부부 지원 등)
- 2015년 10월, 새누리당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 발표]  
초중등 입학연령 학제 개편 논의

# 해방 이후 국가의 섹슈얼리티 담론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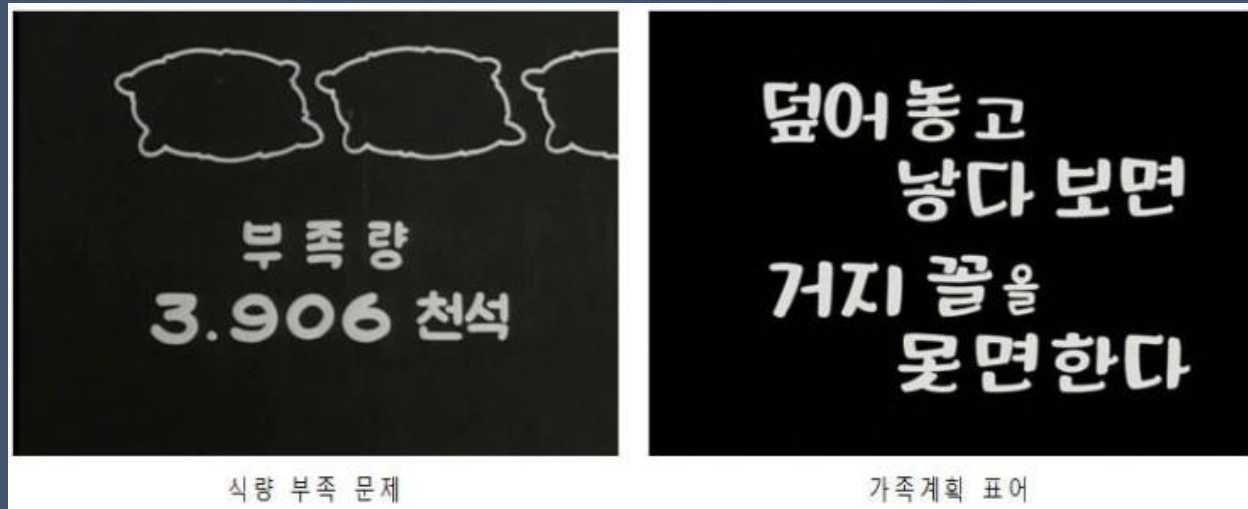
# 1950년대 "법은 정숙한 여성의 정조만 보호한다?"

- 1954년 박인수 사건
- 1956년 <자유부인> 흥행
- 1957년 미스코리아 대회 개최



# 1960년대 “덮어놓고 낱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 1961년 가족계획위원회
- 1967년 윤복희 미니스커트 화제 / '퇴폐' 풍조의 등장
- 1969년 클리프리차드 내한공연



## 1970년대 관치형 성매매



- 1970년대 일본인 기생관광 성행  
"외화획득"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소녀들의 순정은 진실로 칭찬할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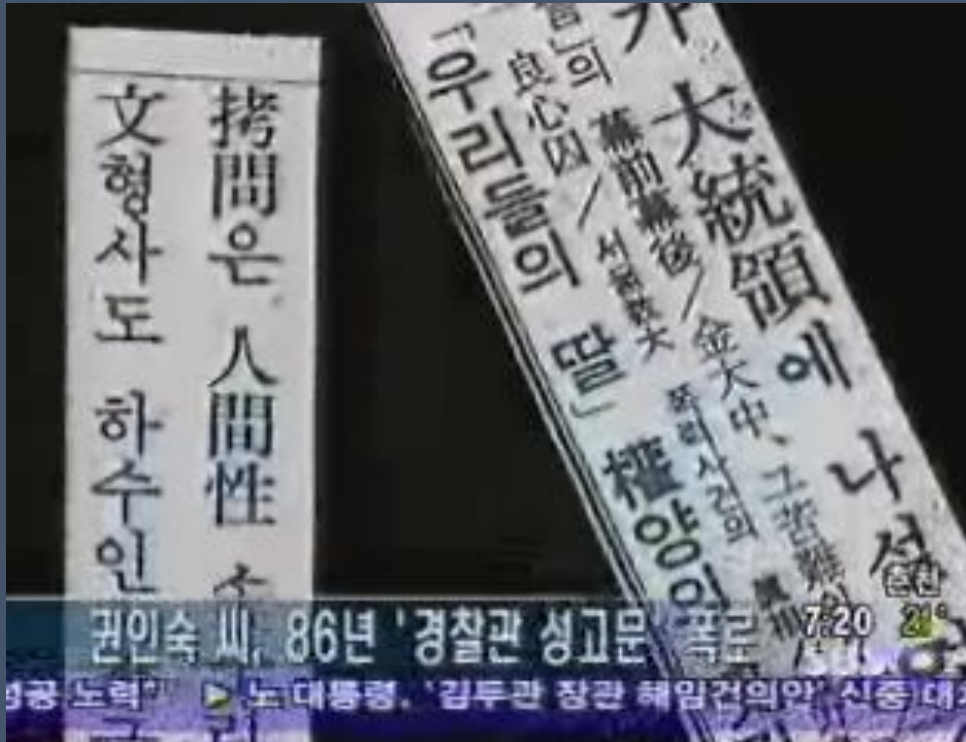
- 1973년 6월 동경, 민관식 문교부 장관 발언 (월간조선, 1993년 3월, 176쪽)
- 1973년 12월 19일 이대생 10여명 반대 시위
- 1973년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마약단속

# 1980년대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아닌가



1982년, <애마부인>, 정인엽 / 1984년, <무릎과 무릎사이> / 1985년, <어우동>, <뽕> / 1986년, <씨받이> / 1988년, <매춘>

# 1986년 문귀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



##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 부분 승소

2억요구...은폐조작 불인정으로 3천만원 지급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피의자 권인숙 (28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 위자료 청구소송 선고판에서 국가가 권씨에게 3만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판에서 권씨를 진 경찰이 권씨에게 성고문한 행위에 대해 2만만원, 공안관계 공무원의 위하사실 유포에 대해 1만만원 등 모두 3만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에게 성고문한 사실이 원고에게 성고문을 가함으로써 그 영혼과 인격에 커를 수 있는 상흔을 남기게 한 사실과 결혼수사 발표 당시 공인 관계가 된 실무자들에게 의해 원고의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위화사실을 덮으려했다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대해지지를 통한 사건 손해조사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권씨를 대해지지가 이 사건에 경찰력을 동원해 문경장을 불구속 기소도록했다는 주장이 없고 특별한 사정·기소 권위에 근거해 재판은 수사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의 정당성 어느 한쪽에 불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스어만 반장은 성고문 피해자를 드러낸 여사라고 말하는 원씨는 관제기관 본체로 자 복귀를 원하는데 피의자를 사죄받았다고 말한다.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였던 권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요소

이한 결단에 의해 처벌받은 영수형이 이 나라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진 일고문인 것으로 예상되면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권위 무제를 저지하는 것인데 사법부의 권고에 의해 영수형을 불검을 통렬하듯 깨어내리는 정치는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유일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또 "법정에서 5년 징역을 선고받고 출정한 이 2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새 피의 배정된 것이 없고 이렇듯 세 사람의 연이은 반성문도

정치독방"이라며 "원칙을 저지르고서 권은 5년형집의 공포 피세인 만큼 이 사건에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손이 있게 주시함에 애호가하겠다"고 밝혔다.

원천 법정에 나와 문경내용에 죄를 수 없었던 원고의 씨 역시 "거세사실 공판 중 공판에서 권씨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불행한 재판결과에 대해 "공고문에 당혹해 경찰서에서의 재판이란 존재 조부 행위를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1990년대 “난 진짜 성혁명이 일어난 줄 알았어”

“Rape Me! 날 강간하라!”



노예시장같은 미인대회를 차버리자  
“미스코리아 대회는 굴욕적이고 반여성적인 추태”

최근 흥행소용 여인을 배출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노예시장같은 미인대회를 차버리자 “미스코리아 대회는 굴욕적이고 반여성적인 추태”

불거리 위해 갈수록 선정적분위기 연출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여인들이 수영복을 입고 무대를 걷고 있다. 이들은 미인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수영복을 입고 걷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미인대회 무대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미인대회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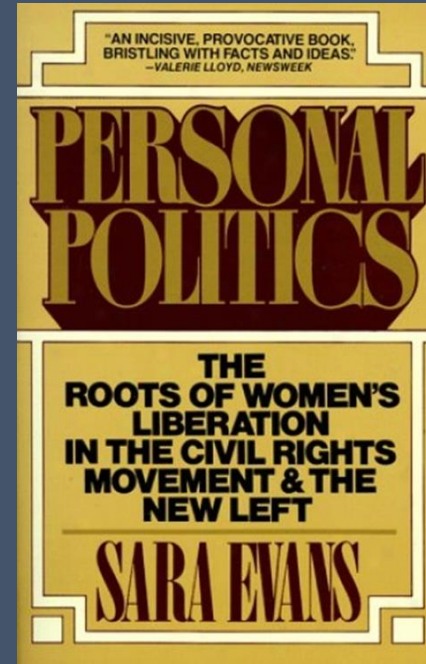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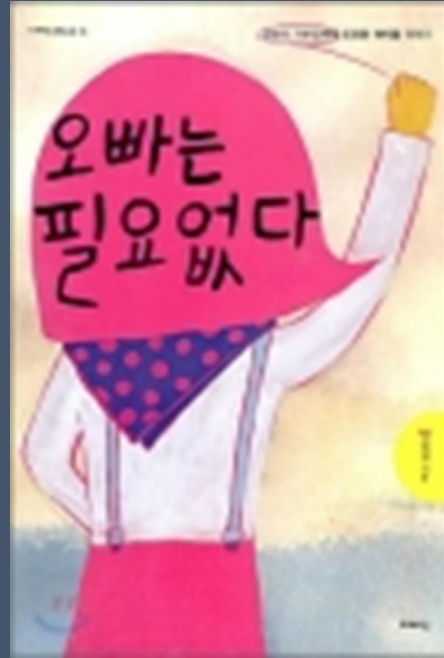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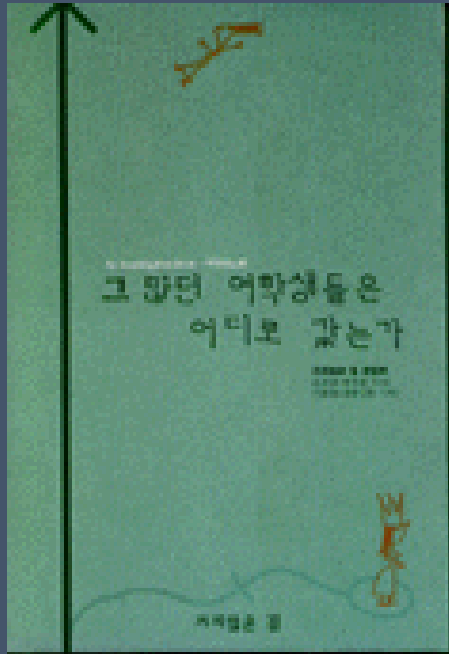
특법제정을 위한  
정당미초청간담회  
주최성폭력특법제정추진위원회

A group of women are sitting around a table in a meeting room. They appear to be engaged in a discussion or a meeting. The room has a white tablecloth and some papers on the table.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 성정치와 페미니즘의 시대

- 1992년 마광수 교수 <즐거운사라> 기소 (1995년 대법 유죄확정)
- 1993년 왕가위 감독 <해피투게더> 상영금지
- 1994년 연극 <미란다> 외설시비 공연취소, 불구속기소
- 1996년 장정일 소설 <내게거짓말을해봐> 구속기소
- 1998년 이현세 만화 <천국의신화> 정보법 위반 소송
- 2001년 미술교사 김인규씨 누드 홈페이지 게재 사건 (05년 대법 유죄확정)
- 2001년 엑스존 사이트 자진폐쇄 2002년 헌법소원 제기
  
- 1994년-2002년까지 3대 여성폭력방지법 입법(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02년 성매매 방지법)
- 성정치 담론의 확산, 영페미니스트 운동

# 영페미니스트들의 등장 전야



대학내의 성차별주의  
사회운동 내의 성차별과 성폭력  
의제의 위계에 대한 질문



# 영페미니즘 운동의 조직론

- 총여학생회/여학생위원회/여성위원회/성평등위원회/페미니즘 동아리...등등의 다양한 조직방식에 대한 토론  
여학생운동에서 학내 여성운동으로 정리
- 중앙/지부 조직에서 수평적 연대, 자치단위 공동회의 방식으로, 전여대협 같은 단일대오 조직형태로는 학내 여성운동의 목표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
- 학내의 가부장적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상에 대한 촘촘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 전여대협/동서남북 여대협 등 단일대오중앙집권조직에서 사안에 따른 연대조직으로 분화

대학내반성폭력문제해결을위한여성연대회의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  
여대생먹고살기대책위원회 - 살맛 - 여성경제네트워크 프리워  
들꽃모임 - 돌꽃모임

- 기획집단 등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이슈파이팅 소그룹  
게릴라식 조직을 만들고 없애는 방식, 기획단 등의 형태

성정치문화제 등 각 대학의 문화제  
월경축제 등 대학과 상관없이 모여 만드는 문화축제  
페미니즘 캠프 여성영화제 등 의식고양행사

# 조직문화와 구체적 기획

조직문화 :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반대

-호칭 논쟁과 별칭 문화

-대표 없는 조직 지향했으나 책임의 분배라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구체적 기획

-전략1 게릴라 퍼포먼스 및 시위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위문화)

-전략2 페미니스트 문화운동 (문화제, 축제, 영화제, 캠프)

- 전략3 사이버 페미니즘 (웹진, 커뮤니티, 언론)

# 영페미와 뉴페미 사이

• 2008-2015의 한국 사회

2007년 4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12월 이명박 당선

2008년 촛불시위

2008년 이후 대량/불법 해고 기승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

2009년 용산참사

2011년~현재 청소노동자 - 대학생 연대투쟁

김진숙 고공농성 - 희망버스 등 시민과의 연대투쟁

강정, 한진, 유성, 재능, 명동마리, 홍대두리반 등

장기농성장 에 20대 페미니스트들의 참여활발

# 전환의 시대에 대한 진단

• 2008-2015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

정치 선거중심 민주주의의 한계

경제 금융자본주의의 한계

사회 글로벌 경계의 재편성 양극화의 심화

문화 뉴미디어의 부상과 “힐링(정신승리)”담론

# 전환의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

- 벨룩스, 2물결 이후의 아이디어

- 여성들은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섹스들과 젠더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도 이 변화를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

- 타자에 대한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 권력구조의 창출

# 전환의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

## 현실과 목표

- **권력구조**의 문제 (공적 영역: 정부와 조직들/ 사적 영역: 집, 가족)는 지배와 억압 그리고 가부장제에 기반해있다.
- 여성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은 **억압자가 되는 것에 저항해야만** 한다
- 페미니즘의 목표는 지배와 압제의 가부장 체계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억압을 종식시키는데 있다.

# 전환의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

## 방법과 원칙

- (1) 여성은 다양하다 여성의 정체성은 섹스,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사회관계에 기반해있다
- (2) 차이는 중요하다 차이들은 그것이 더 많은 갈등을 낳는다고 해도 토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 (3) 더 작게 나뉘어져 더 많이 토론하라 작은 집단 내의 토론은 효과적이다, 개인적인 경험들은 토론을 인간적으로 만든다.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의 기회를 얻게 되고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강력한 것으로 만든다.
- (4)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랑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욕망과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려는 의지이므로 변화의 촉매가 된다.



# 2010년대 성규범의 재구성 시대

1. 인권/차별담론의 발전으로 성적자기결정권 강조
2.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신체와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전망 공유 불가능해지기 시작  
(만혼, 출산포기, 연애포기 등의 세대들 등장)
3. 낙태논쟁 재점화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4.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관련 혐오세력 정치세력화 (보수기독교진영 및 공교육학부모회 등)
5. 간통죄 폐지
6. 국가주도 성교육 교과서 논쟁

1990년대 이후

국가의 섹슈얼리티 정책에 영향을 준 주요사건

#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시작되고, 20년이 지나...

# 2004 성매매 특별법



2002 군산 참사

한국인들의 낮뜨거운 인신매매...

무늬만 1등급

美 국무부가 공개한 한국의 '인신매매'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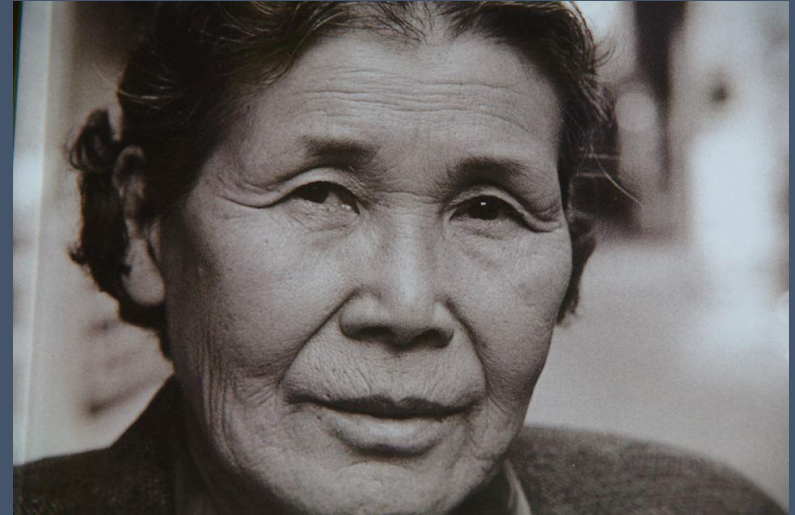
2010 미국무부 보고서



2003-2016 현재

## 1991년 군위안부 증언

1991년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1975년 잊혀진 증언자, 배봉기



# 2004년 이승연 위안부 누드화보집 제작발표



# 2011년~현재 소녀상의 문화정치



# 2015년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기소





## 1997년 "빨간마후라" 비디오 사건



2008년 조두순 2009년 김수철 2010년 김길태 ...

아동 성폭력,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 처벌 수위 높이고 인터넷에 신상 공개

정부는 10월 8일 총리실 주재로 정부부처 합동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회의' 를 열고, 가해자 격리 및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안전대책을 발표했다.



# 2007년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등 7개 조항 삭제



# 2015년 국가 성교육 표준안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단지 생물학적인 측면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활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이나 성 가치관, 성윤리, 성규범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공통적이면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인 요소 이외에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 종합적인(comprehensive) 개념으로 정의된다” - 2015년 국가 성교육 표준안 도입배경 중

학교 성교육 =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 성 정보교육이 되지 않도록 : **다가지(多價性) 교육**
- 동성애에 대한 지도 : **어용되지 않음**
- 성적 소수자 : **인권 측면과 성적 가치 측면을 분리**
- 신생아 관리 : **조기 분제상황에 대한 대처가 목적**
- 편중된 가치(진보와 보수)의 관점 : **중립성**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가치와 결정권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2015년 간통죄 위헌판결



## 역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선고일 1990년 9월10일

합헌 6명      위헌 3명

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해 위헌

1993년 3월11일, 1990년 결정 그대로 인용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 여전히 유효

2001년 10월25일

합헌 8명      위헌 1명

형사처벌할 범죄 아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하지만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2008년 10월30일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

성에 대한 법감정 변화.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

2015년 2월26일

합헌 2명      위헌 7명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이재윤 기자 / 2015022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YONHAPNEWS

# 한계에 부딪힌 권리 담론

- 낙태 vs 임신중단의 권리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의 확산
- 동성결혼 vs 결혼보호
- 비규범적 섹슈얼리티의 병리화
- 친밀성의 거래와 성의 교환경제
- 성을 디딤돌로 삼은 종교의 정치화

Obama: "The Abortion President"



**“음란에 연대하고 폭력에 저항하라”**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남성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창의성을 결핍시키고  
정치적 불모성을 낳게 한다

- 솔라미스 파이어스톤



2015 교육부 성교육 교수·학습과정안에 맞춘 교사지침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성교육

# 성·사랑·가정



한국성과학연구협회  
KOREAN SEXOLOGY RESEARCH ASSOCIATION

